

영국사례

**언론사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을 적절히 정정했다면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PCC는 데이비드 알롭 씨가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Sunday Times Magazine)을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지난 2005년 1월 16일 카톨릭 교회 역사의 논란적인 부분을 다룬 『픽션보다도 이상한 일』 제하의 기사에서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죽음을 다룬 자신의 책,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내용과 결론을 잘못 보도하고 있다며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인은 위 기사가 PCC 윤리강령 제 1조(정확성)를 어겼으며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PCC에 올바르게 협력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취한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발표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문제됐던 부분을 적절히 수정했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주장한 사과문 게재 역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정보도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실렸다는 주장

또한 기각했다.

그러나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이 불만신청인의 동의없이 PCC가 금하던 정정문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시스템의 원칙을 역행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해결과정에서 PCC와 협력하기를 규정하는 부분을 어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에게 회답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도 문제 삼았다. PCC는 선데이 타임즈 매거진의 편집장에게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

호주사례

**기사에 의견을 담지 않고 나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호주신문평의회는 팜 호프 씨와 디나 버게스 씨가 더 에이지(The Age)의 예루살렘 특파원이 보도한 4건에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파원의 필자명과 사진이 포함된 이 기

사들은 각각 지난 2005년 6월 4일, 6일, 11일, 29일에 보도됐는데 첫 번째 기사에서는 저명한 TV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웨스트뱅크와 가자 지역의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집중 소

개했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고고학적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동 예루살렘의 실완 지역의 아랍 주민 1000 세대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이스라엘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기사는 이스라엘 군인이 영국인 평화주의자를 사살했는데 희생자의 가족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그 군인이 수뇌부의 앞잡이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4건의 기사가 부정확하고 중요한 점을 생략했으며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신청인들은 기사들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만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사가

객관성과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미티즘에 대한 대중들의 적대심을 유도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 에이지는 문제가 제기된 기사들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나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 중 특정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더 에이지는 한 면에 양 국가 대립의 전체적 역사를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밝히고 기사에서는 중대한 인권이 양쪽 진영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담으려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에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중동 문제를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보도해왔다고 밝혔다.

호주신문평의회는 문제가 된 기사들을 검토하고 불만신청인들과 더 에이지 측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더 에이지의 특파원은 기사 자체에 의견을 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만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뉴질랜드 사례 1

어느 한 당사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매도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웨슬리 페리쉬 씨가 더 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더 프레스가

지난 2005년 8월에 가자지역에서 퇴출당하게 된 유대인 사람들의 분노를 다룬 8개의 기사를 가리키며 "특정의 대립된 사건에 대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취재하고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스스로가) '가자 해방 광대극'이라 부른 더 프레스의 보도문이 뉴스를 전달하는데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정확성과 인종차별성에 관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 원칙을 언급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니퍼 로웬스타인 씨가 작성한, 팔레스타인과 아랍 쪽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지 않는 서양 언론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같은 달 보도된 두 개의 다른 기사는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지적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가자 철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팔레스타인의 관점을 보인 기사 2건과 유대인 관점의 기사 8건은 양쪽을 공정하게 취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론의 책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더 프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의 사건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고작 한 달의 숫자 통계를 가지고 공정함을 측정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집을 떠나야 하는 유대인들의 드라마를 취재한 기사가 반대파의 입장을 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다른 두 기사에 나타나 있듯이 유대인들의 아픔은 곧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쁨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가자에서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길고 긴 사투 속의 새로운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곧 세계 언론이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기사의 포커스는 좀 더 드라마틱하고 기사거리가 되는 소재, 즉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떠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것이라고 봤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언론사들은 국제적인 중요 이슈를 자신들만의 자료로 보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의 중개사들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 더 프레스는 불만신청인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두 개의 반대관점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더 프레스의 편집장은 “8월 기사에는 많은 중개소들이 관여했고 그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사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견해가 심하게 나뉘는 복잡한 상황에서, 기사의 목적은 모든 뉴스와 관점에 대한 알맞은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제출한 로웬스타인 씨의 기사에 대해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중대한 국제적 관심사인 가자 철수사건을 자신들만의 자료로 보도하기가 불가능한 일개 뉴질랜드 언론사가 그러한 현상을 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반대 여론 속에서도 강행한 일인 만큼 가자 철수 사건은 많은 세계의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사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취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더 프레스는 이러한 관심사를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었다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기사들은 길고 격렬한 역사의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보도한 것이고 더 프레스는 공정함을 요구하는 제1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해외 중개소에서 제공된 기사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자체적 견해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러므로 더 프레스가 편견을 가지거나 팔레스타인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경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제3원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뉴질랜드 사례 2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뉴질랜드신문평의회는 내셔널프론트 웰링턴 지구의 대표인 K.R. 볼튼 씨가 2005년 4월 24일자 “내셔널 프론트가 Anzac 퇴역군인들을 성나게 하다”라는 제목

의 선데이 스타 타임스 기사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불만신청인은 이 기사가 선동적이며 공점함과 밸런스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제기

했다. 기사에는 뉴질랜드의 수상 헬렌 클라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모습의 사진이 포함됐다.

위 신문의 기사는 Anzac 일 바로 전날 보도되었고 RSA의 대표인 팻 허버트 씨는 Anzac일 행사에 참여하려던 ‘네오 파시스트’ 그룹과 내셔널 프론트의 멤버들로부터 공격적인 이메일들을 받았다.

내셔널 프론트의 대표 카일 채프만 씨는 그의 견해를 담은 글을 발표했다. 그는 해마다 내셔널 프론트의 멤버들은 Anzac일 행사에 참여했으며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깊은 뉴질랜드 사람들이고, 또 내셔널 프론트는 나치즘을 찬성하거나 이민자들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한 사람들은 제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기사는 최근 종종 백인우월주의나 파시즘을 찬양한 글이 내셔널 프론트 웹사이트에 자주 올라온다고 보도하며 그런 글들이, 많은 RSA 멤버들이나 2차 세계대전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뉴 브라이튼 RSA 대표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내셔널 프론트가 반대 시위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들을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RSA에 이메일을 보낸 사람 중 두 명인 메서스 배리 사젠트 씨와 로버트 트리간 씨가 내셔널 프론트를 상대로 공동의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이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위 신문이 내셔널 프론트를 항상 네오나치 단체로 표현하고 있고 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정식 멤버도 아닌) 파시스트 사람들과 엮으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불만신청인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는 헬렌 클라크의 사진을 담은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저널리즘의 좋은 예고, 기사는 RSA가 “폭력적이고 명예훼손을 일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작은 단체”의 관점을 지지하도록 조작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의 불만에 대한 답변으로 위 신문의 부편집장은 기사가 내셔널 프론트를 상대로 RSA를 격분시키거나 RSA의 견해를 조작하기 위해 메서스 사젠트 씨와 로버트 트리간 씨와 공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Anzac 행사에 내셔널 프론트가 참여하는 것이 RSA로서는 인정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신문은 채프만 씨의 견해를 취재했고, 기사에 대한 견해는 실지 않았으며 채프만 씨가 나치 찬양자들을 제명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기사가 Anzac 일 전에 보도되기에 매우 좋은 기사라고 판단했다. 비록 뉴브라이튼은 내셔널 프론트의 참여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보도된 바대로 RSA 멤버들에게는 내셔널 프론트가 Anzac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불쾌한 일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내셔널 프론트 대표의 의견도 길게 담고 있었고, 헬렌 클라크의 아우슈비츠 방문사진도 뉴스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기사가 선동적이지 않으며 이 이슈가 매우 민감한 만큼 기사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몇 달 전 편집장에게 보냈던, 기사에 대한 견해를 담은 편지를 신문에 실지 않았으며 다시 불만을 제기했지만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에 보도할 편지를 고르는 것은 항상 편집장의 몫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